



[월간 노동시장 모니터]
2015년 3월 노동시장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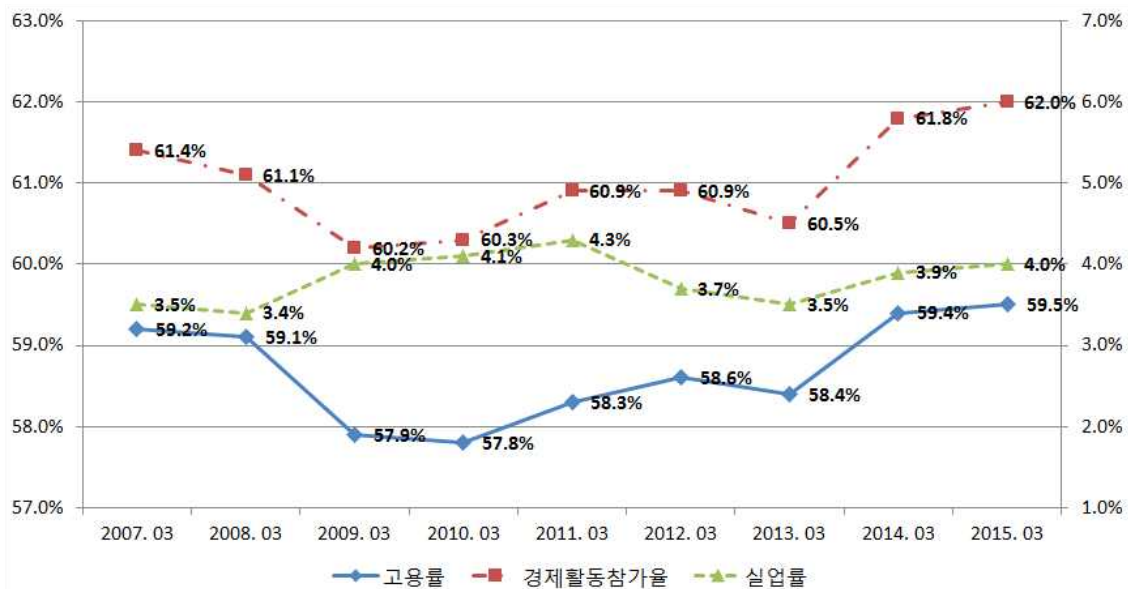
2015. 4.16 | 김수현_새사연 연구원 | sida7@saesayon.org

2015년 3월 주요 고용동향

▣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 2015년 3월 고용률은 59.5%로 전년 동월대비 0.1%p 상승
- 실업률은 4.0%로 전년 동월대비 0.1%p 상승
- 경제활동참가율은 62.0%로 전년 동월대비 0.2%p 상승
- 고용률 및 경제활동참가율 개선이 지속되고 있음. 이는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 중 생산활동을 하고 있거나 생산활동에 참가하려고 하는 이들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음을 의미함

그림1.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각 연도 3월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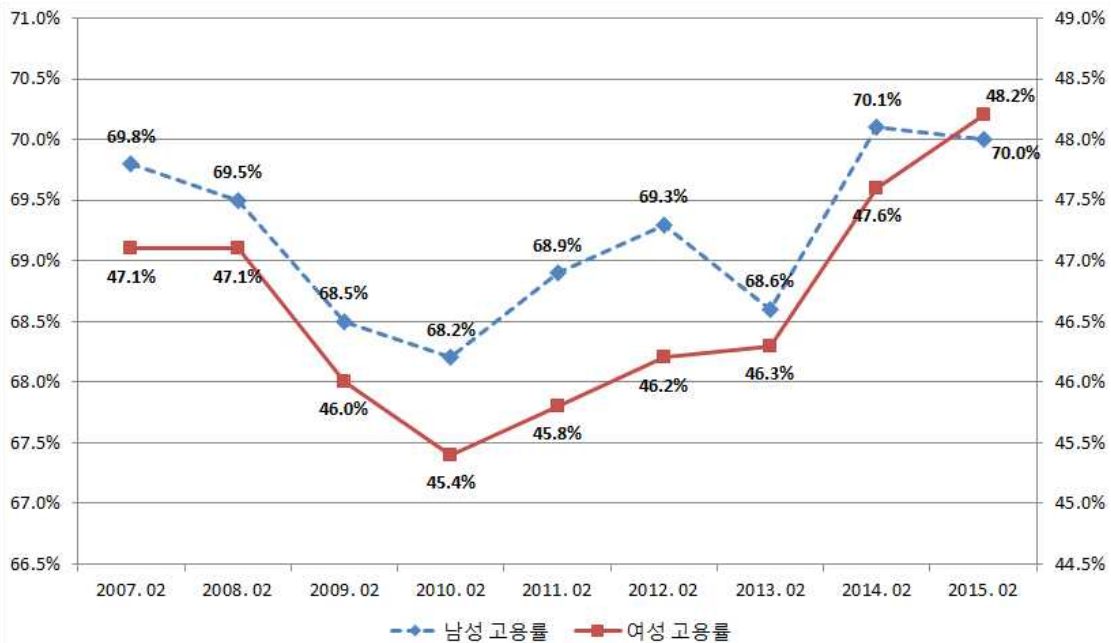


※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은 좌측 축, 실업률은 우측 축 참조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성별로 보면 남성 고용률은 70.5%, 여성 고용률은 48.9%로 나타남
- 남성 고용률은 전년 동월대비 0.1%p 하락한 반면, 여성 고용률은 0.2%p 상승함
- 상대적으로 여성 고용률의 상승세가 두드러짐
- 하지만 여전히 성별 고용률 격차는 20%p 이상을 유지하고 있음
- 또한 우리나라의 여성 고용률은 다른 OECD 회원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을 고려할 때 앞으로도 계속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시킬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시행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됨
-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 확대는 긍정적인 결과임. 하지만 ‘얼마나’ 확대되었는가만큼이나 ‘어떻게’ 확대되었는가도 중요한 문제라는 점을 명심해야 함. 노동시장의 질적 수준을 악화시키는, 소위 ‘양질의 일자리’의 대척점에 있는 ‘좋지 않은 일자리’를 통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시킬 경우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위험이 있음

그림 2. 성별 고용률 변화 추이, 각 연도 2월 (단위 : %)



※ 남성 고용률은 좌측 축, 여성 고용률은 우측 축 참조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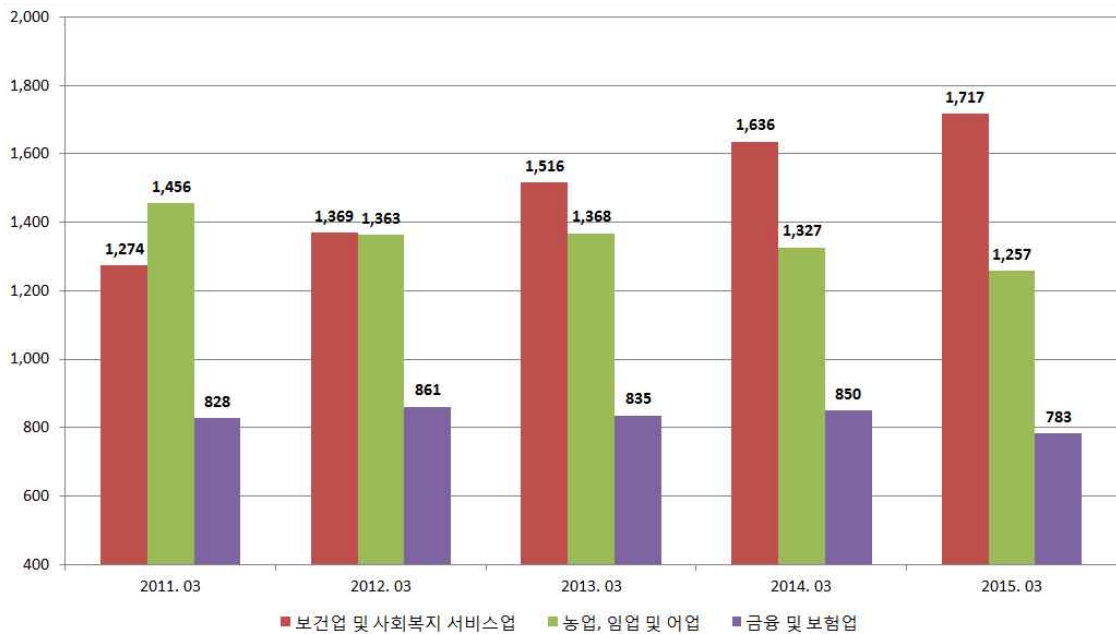
■ 취업자

- 취업자는 2,550만 1천 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33만 8천 명 증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작년 하반기에 비해 증가속도가 둔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산업별로 보면 전년 동월대비 제조업(11만 6천 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8만 1천 명), 건설업(7만 8천 명), 도매 및 소매업(7만 4천 명) 등에서는 취업자가 증가한 반면, 농림어업(-7만 명), 금융 및 보험업(-6만 7천 명), 공공행정·국



- 방 및 사회보장 행정(-5만 7천명), 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5만 3천 명) 등에서는 취업자가 감소함
- 제조업에서의 취업자 증가가 두드러짐. 금융위기 직후 400만 명 미만으로 감소해 우려를 불러왔던 제조업 취업자 수는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임. 2015년 3월 현재 440만 명이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음
- 사회서비스 산업 역시 지속적으로 취업자가 증가하고 있음. 민간수요 확대에 기반으로 사회서비스 산업에서는 금융위기와 상관없이 빠르게 취업자 수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2015년 3월 현재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종사자는 171만 1천 명으로,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 3월에 비해 100만 3천 명이 증가했음. 앞으로도 사회서비스에 대한 민간수요 증대와 함께 사회서비스 산업의 종사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농림어업 종사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2007년 3월 161만 1천 명이었던 농림어업 종사자 수는 2015년 3월 125만 7천 명으로 줄어들었음
- 최근에는 금융 및 보험업의 취업자 수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임. 2014년 3월 85만 명이었던 금융 및 보험업 취업자 수는 2015년 3월 현재 78만 3천 명으로 6만 7천 명이 감소하였음. 이는 해당 산업에서 이어지고 있는 구조조정과 관계됨

그림3.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농림어업, 금융 및 보험업 취업자 변화 (단위 : 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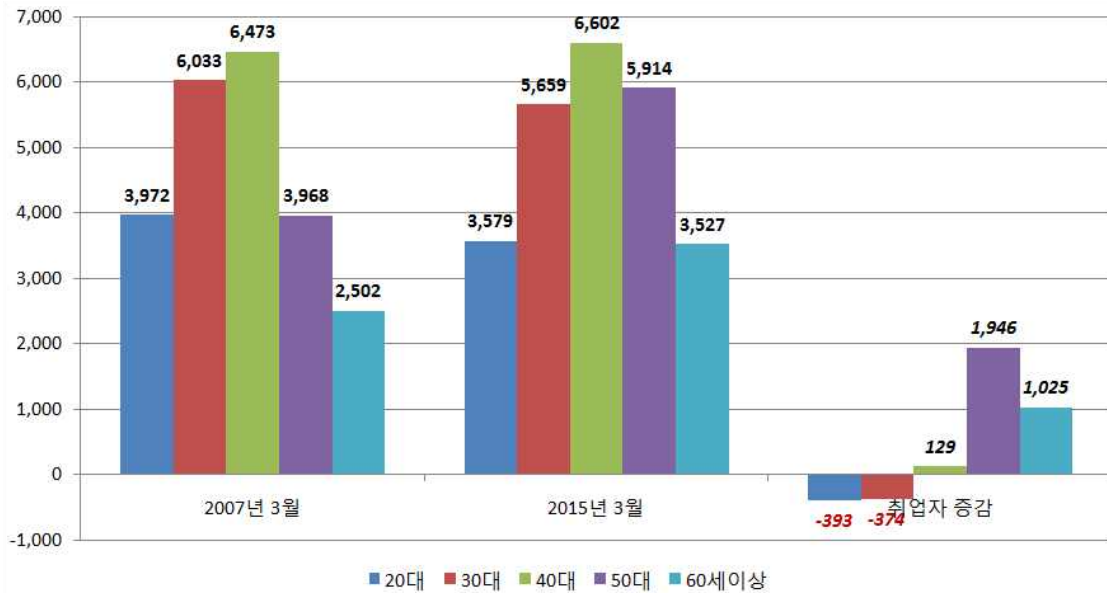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에서 역시 취업자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정부 및 공공부문에서의 고용이 전년 동월에 비해 줄어들었음을 반영하는 것임. 하지만 여전히 금융위기 이전과 비교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2015년 3월



- 현재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의 종사자 수는 93만 1천 명으로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 3월 78만 6천 명에 비해 14만 5천 명이 더 많음
- 성별로 보면 남성 취업자는 1,478만 9천 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16만 6천 명이 증가했고, 여성은 1,071만 2천 명으로 17만 2천 명 증가함
 - 연령계층별로는 50대와 60세 이상 취업자의 증가가 두드러짐
 - 전년 동월대비 50대 취업자 수는 15만 8천 명,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21만 명이 증가함. 이런 중고령층 취업자 수 증가는 중고령층 인구 증가가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 반면 20대와 30대 청년층 취업자 수는 약간 증가하거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전년 동월대비 20대 취업자 수는 4만 5천 명 증가했으나 30대 취업자 수는 3천 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금융위기 이전과 비교했을 때 청년층의 취업자 수는 줄어들고, 중고령층 취업자 수는 늘어난 것이 확연히 관찰됨. 최근 청년 취업자 수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여전히 청년 취업자 수 및 고용률이 낮은 상황으로, 청년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통해 청년 취업자 수 및 고용률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그림 4. 연령계층별 취업자 수 변화 (단위 : 천 명)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실업자 및 비경제활동인구

- 실업자는 107만 6천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5만 2천 명 증가함.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의 비중을 나타내는 실업률은 4.0%임. 지난 2월과 비교하면 실업률과 실업자 수 모두 감소했지만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공식적인 실업률은 이처럼 4.0% 수준이지만, 실업자와 함께 잠재경제활동인구¹⁾, 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²⁾를 광의의 실업자를 보고 이들 광의의 실업자가 잠재경제활동인구를 포함하는 경제활동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한 광의의 실업률(통계청 : 고용보조지표³⁾)은 11.8%로 나타남
- 비경제활동인구는 1,629만 8천 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10만 6천 명 증가함
- 성별로 보면 남성은 557만 4천 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8만 명 증가하였으며, 여성은 1,072만 3천 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2천 6명 증가함. 여전히 여성 비경제활동참가율이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저임금 노동자 및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규모와 특성

▣ 저임금 노동자의 개념

- 저임금 노동자는 말 그대로 낮은 수준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를 가리킴. 그리고 이런 저임금 노동자의 규모나 비중은 전체 임금근로자 중 이처럼 낮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얼마나 되는가를 나타냄
- 하지만 어떤 노동자를 저임금 노동자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히 정의되지 않음. 절대적 기준의 소득을 올리지 못하는 노동자들을 저임금 노동자로 보는 경우도 있으며(예를 들어, 시간당 임금이 1달러 미만인 경우, 또는 월임금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경우를 기준으로 저임금 노동자를 구분하는 방법), 상대적 기준을 통해 저임금 노동자를 정하는 방식(예를 들어, 시간당 임금이 전체 임금근로자 시간당 임금 중위값의 2/3 미만인 노동자 또는 월임금이 전체 임금근로자 월임금 중위값의 2/3 미만인 노동자를 저임금 노동자로 구분하는 방법)도 사용되고 있음
- 여기서는 월임금의 2/3 미만인 노동자를 저임금 노동자로 구분하는 상대적 기준을 통해 다른 일자리들에 비해 월평균 소득이 낮은 일자리를 저임금 일자리로 보고, 그 일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저임금 노동자로 분류해 그 규모와 특성을 살펴보고 있음. 이와 함께 법적으로 정해진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최저임금이라는 절대적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살펴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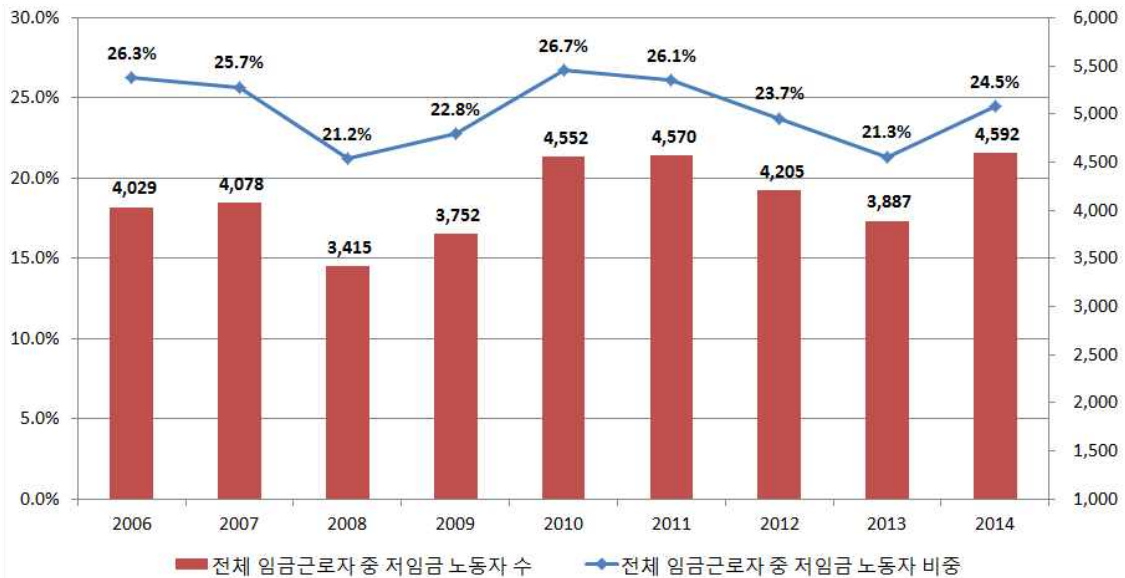
- 1) 잠재경제활동인구 : 잠재취업가능자와 잠재구직자의 합계. 여기서 잠재취업가능자는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지난 3주간 구직활동을 하였으나, 조사대상주간에 취업이 가능하지 않은 자를 가리키며, 잠재구직자는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은 하지 않았지만, 조사대상주간에 취업을 희망하고 일자리가 주어진다면 취업이 가능한 자를 의미함
- 2) 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 : 취업자 중에서 실제 취업시간이 36시간 미만인면서, 추가 취업을 희망하고 일자리가 주어진다면 추가로 취업이 가능한 자
- 3) 고용보조지표³ =
$$\frac{\text{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 + \text{실업자} + \text{잠재경제활동인구}}{\text{경제활동인구} + \text{잠재경제활동인구}}$$



▣ 저임금 노동자의 규모

- 월임금이 임금근로자 월임금의 2/3(약 126만 7천 원)에 미치지 못하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비중은 2014년 8월 현재 24.5%임. 또한 저임금 노동자의 규모는 459만 2천 명임
-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의 비중은 25% 수준을 중심으로 변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낮아지는 경우에도 20% 이상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저임금은 가구의 저소득으로 이어져 생계유지를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음. 특히 가구원 수는 많은데,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가구원 수는 한 명으로 제한된 가구의 경우 그 한 명이 저임금 노동자라면 생계유지에 있어 곤란을 겪거나, 빈곤에 노출될 위험이 클 것임
- 시간당 임금이 전체 임금근로자 시간당 임금의 2/3(약 6820원) 미만을 받는 노동자를 기준으로 저임금 노동자를 분류할 경우 2014년 8월 현재 저임금 노동자의 비중은 24.0%로 나타남. 시간당 임금을 기준으로 한 저임금 노동자의 규모는 450만 7천 명임⁴⁾

그림 5. 저임금 노동자의 규모 및 비중 추이 (단위 : %, 천 명)



※ 저임금 노동자 비중은 좌측 축, 저임금 노동자 수는 우측 축 참조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자료 각 연도 8월 자료 이용 추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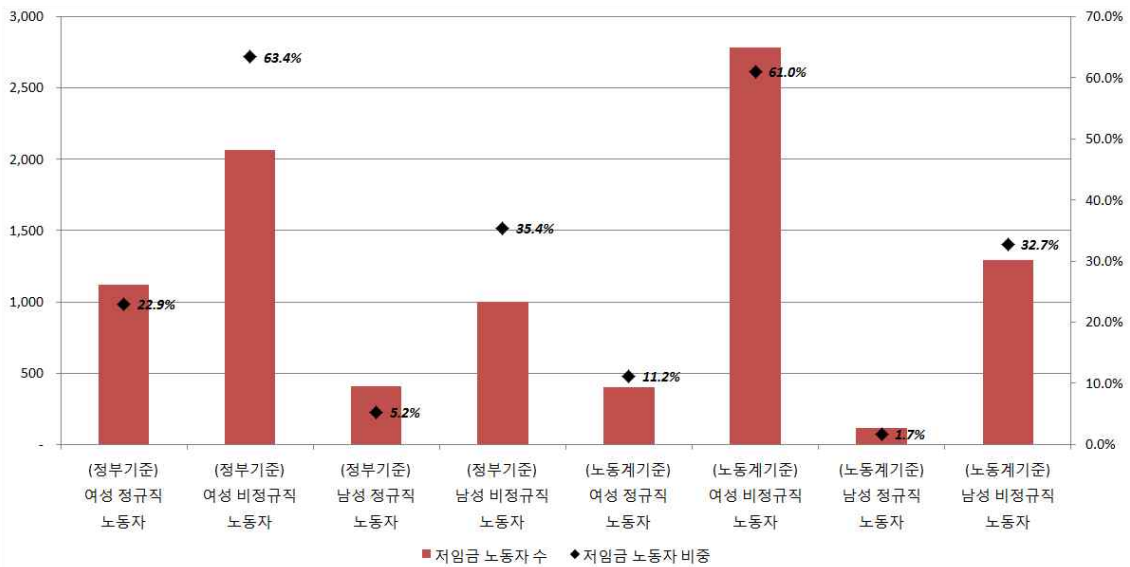
4) 시간당 임금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규모 또는 비중을 계산하는 경우 시간당 임금을 계산하는 방법, 그리고 소수점 이하를 절삭하는 방법에 따라 저임금 노동자의 규모나 비중이 다르게 계산될 수 있음. 여기서는 주간노동시간을 일일노동시간으로 전환시키고 이를 다시 연간, 월간노동시간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통해 월간노동시간을 계산해 그것으로 월평균 임금을 나누는 방법을 통해 시간당 임금을 구하고 있음



▣ 저임금 노동자의 특성

- 남성에 비해 여성 임금근로자 중 저임금 노동자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2014년 8월 현재 전체 여성 임금근로자 중 저임금 노동자에 해당되는 비중은 39.1%임. 반면, 남성 임금근로자 중 저임금 노동자에 해당되는 비중은 13.2% 수준임
- 저임금 노동자를 기준으로 봤을 때 역시 여성이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음. 2014년 8월 현재 전체 저임금 노동자 459만 2천 명 중 69.3%가 여성임
- 이는 노동시장 내 소위 여성 일자리에서 임금 수준이 낮은 경우가 많고, 여성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으로 생각됨
- 또한 비정규직의 경우 저임금 노동자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정부의 비정규직 개념을 따를 경우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 중 50.4%가 저임금 노동자인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노동계의 비정규직 개념을 따를 경우 비정규직 노동자 중 47.9%가 저임금 노동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됨⁵⁾
- 저임금 노동자 중 비정규직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정부의 개념을 따를 경우 66.7%, 노동계의 비정규직 개념을 따를 경우 88.9%임
- 이에 따르면 저임금 노동자의 상당수가 비정규직 일자리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그림 6. 성별, 일자리 특성별 저임금 노동자 규모 및 비중 (단위 : %, 천 명)



※ 저임금 노동자 수는 좌측 축, 저임금 노동자 비중은 우측 축 참조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자료 각 연도 8월 자료 이용 추산

5) 정부는 고용형태에 따라 한시적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비전형 근로자를 비정규직 노동자로 정의하고 있는 반면, 노동계에서는 통상 이와 함께 종사상 지위가 임시직이나 일용직인 경우에도 비정규직 노동자로 포함시키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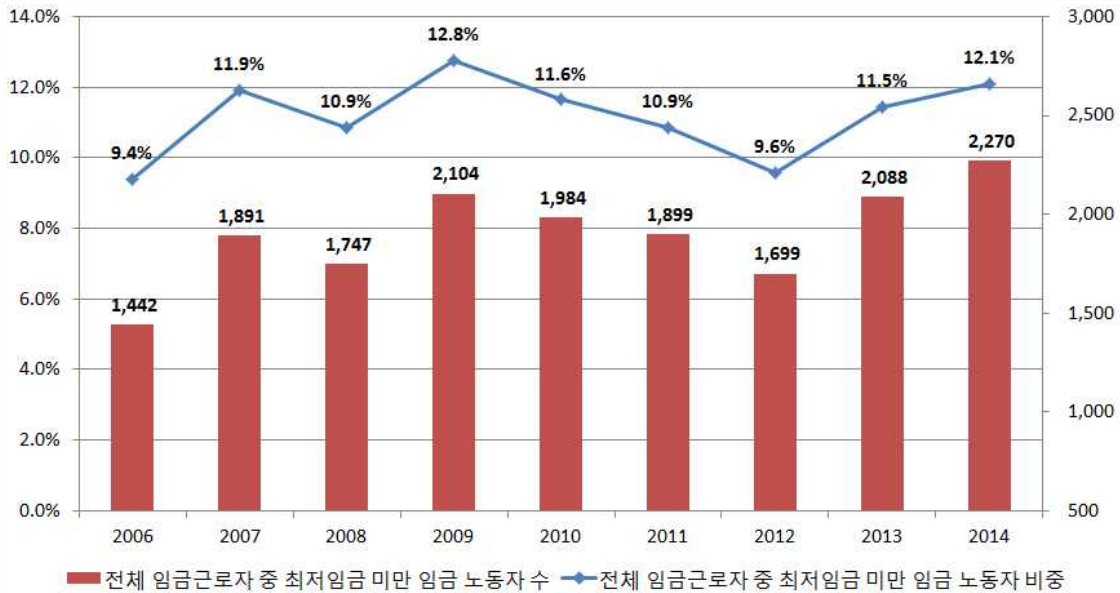


- 여성 노동자 중 저임금 노동자의 비중이 많은 현실 역시 여성 노동자 중 이와 같은 비정규직 일자리에 종사하는 이들의 비중이 크다는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임. 비정규직 일자리에 종사하는 이들의 비중이 높은 여성 중고령층의 경우 특히 저임금 노동자인 경우가 많음
- 학력별로 보면 학력 수준이 낮을수록 저임금 노동자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학력수준이 고등학교 졸업 이하인 임금근로자 중 저임금 노동자의 비중은 37.3%인데 반해, 학력수준이 전문대졸 이상인 임금근로자 중 저임금 노동자의 비중은 10.5% 수준이었음

▣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들

- 시간당 임금⁶⁾으로 환원했을 때 법정 최저임금 기준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는 노동자들이 있음
- 2014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자료를 통해 계산했을 때 시간당 임금이 2014년도 최저임금 5,210원보다 적은 노동자들의 규모는 227만 명으로 나타남. 이는 전체 임금근로자의 12.1%에 해당됨

그림 7.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인 노동자들의 규모 및 비중 (단위 : 천 명, %)



※ 저임금 노동자 비중은 좌측 축, 저임금 노동자 수는 우측 축 참조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자료 각 연도 8월 자료 이용 추산

- 여기에는 2014년 현재 최저임금제가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감시·단속적 노동자들 등도 포함되지만, 최저임금제가 적용되어야 함에도 그보다 낮은 임금을 강요당한 이들 역시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됨

6)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방법으로 시간당 임금을 계산함



- 이들은 매우 낮은 수준의 임금으로 인해 빈곤 등과 같은 여러 사회적 문제에 노출될 위험이 높음
-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의 특성은 앞서 저임금 노동자들의 특성과 비슷한 경향을 보임. 여성인 경우가 많았고, 비정규직 노동자에서 그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특징적인 것은 노동시장이 긴 노동자들 중에서도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는 이들도 많은 것으로 나타남. 이들의 경우 장시간 노동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생각됨

▣ 최저임금제의 엄격한 적용과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저임금 노동자를 줄여야

- 저임금 노동자들은 낮은 소득으로 인해 생계유지에 있어 곤란을 겪거나 빈곤과 같은 사회적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경우가 많음
- 이런 저임금 노동자들을 줄이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을 인상할 필요가 있음
- 최저임금을 가구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인상하여 “일”을 통해 생계유지에 있어서의 곤란을 벗어날 수 있는 사회를 만들 필요가 있음. 이것이 최저임금제 본연의 목적일 것으로 생각됨
- 또한 엄격하게 최저임금제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 정부는 이상에서 살펴본 저임금 노동자와 최저임금제 미만 노동자의 특성을 고려해 최저임금제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와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특히 명목상의 휴게시간을 늘리는 편법을 통해 최저임금을 주지 않는 경우를 적발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
- 이와 함께 정부는 최저임금 위반의 처벌을 강화하고, 위반이 발견될 시 엄격하게 처벌하도록 해 최저임금제 도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2015년 새사연 발간 보고서

2015년 4월 16일 현재

아젠다	발간일	제목	작성자
한국경제	1/8	‘가상의 적’ 앞세운 구조개혁의 속살	정태인
세계경제	1/12	약 엔, 강 위안, ‘슈퍼 달러’ 의 시대 도래?	박형준
고용,노동	1/15	노동시장 유연화, 만능 열쇠가 될 수 있을까?	김수현
주거	1/22	소수자가 된 무주택 서민의 미래는?	강세진
돌봄	1/26	‘좋은 돌봄’, 현 상황에서는 불가능	최정은
복지	2/3	복지 없는 노후는 ‘재앙’ 이다	이은경
잇:북	2/11	2015년 전망보고서 종합 : 침체의 지속, 복지 축소 정책의 위기	미디어팀
고용,노동	2/16	허점투성이 월급으로 은폐되는 ‘장시간 노동’	이정아
고용,노동	2/24	월간 노동시장 모니터 : 2015년 1월 노동시장 분석	김수현
경제	2/27	복지국가로 가는 길, 한국은 지금 어디에?:①자본주의 다양성 모델들	박형준
경제	3/5	복지국가로 가는 길, 한국은 지금 어디에?:②한국사회경제모델의 나아갈 길	박형준
돌봄	3/9	아동학대와 CCTV 논란, 보육정책 방향	최정은
고용,노동	3/16	노인을 위한 나라가 아니다	이정아
고용,노동	3/19	월간 노동시장 모니터 : 2015년 2월 노동시장 분석	김수현
주거	3/23	주택시장동향분석(5) : 아파트 실거래가 동향	강세진
보건,의료	4/9	의료급여와 노인환자가 재정위기의 주범?	이은경
경제	4/13	‘생활’ 과 ‘생명’ 사이	이정아
고용,노동	4/16	월간 노동시장 모니터 : 2015년 3월 노동시장 분석	김수현